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3년 5월 14일 (둘째 주일)

성경본문 : 레위기 19장 1-3절

설교제목 : “부모를 경외하고”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모공경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레 19:2)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거룩하라’는 말씀의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는 말씀은 문법적으로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라**는 뜻입니다. 미완료 시제는 명령, 계속 그리고 약속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우선 거룩이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거룩은 성취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거룩은 우리 인생의 주제이자,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과정이고, 반드시 거룩은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풍성함이라 구약의 언어로 복입니다.(신28:2-6)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신28:2) 이것이 레위기의 언어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율법을 행하는 삶입니다. 축약하면 십계명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영성으로 살면 풍성한 삶,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거룩하면 풍성한 삶,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기 3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부모를 경외하라고 합니다.(레19:3) 5계명 즉 네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복받는 삶, 즉 풍성한 삶의 가장 기초가 부모공경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6:2-3에서, 부모공경이 약속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모공경이 복받는 삶 풍성한 삶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공경이 매우 중요한 계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부모 공경이 복받는 삶, 풍성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지를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5계명은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핵심적인 계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5계명이 실천되지 않으면 부모가 간직한 여호와와 말씀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주신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창18:19)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의 자식과 권속, 즉 후손들에게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가르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책임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맡은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계명이 5계명입니다. 5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결코 말씀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 존중이 없으면 절대 온전한 신앙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5계명은 자자 손손 그 가정이 풍성함을 누리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계명입니다. 두 번째로, 5계명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에 ‘부모를 경외하라’에서 ‘경외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야레’입니다. ‘야레’란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경외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자신의 위치에 두셨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다. 그러면 왜 부모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모를 통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은 부모님 때문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준 이유 하나만으로도 부모는 공경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신27:16) ‘부모를 모욕하거나’,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바로 부모를 통해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업신여기는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더불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는 부모가 키워주신 은혜를 보답하기 위함입니다.** 인간과 짐승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과 짐승의 어미는 자식이나 새끼를 낳은 후 지극한 모성애로 자신이 낳은 자녀와 새끼를 기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는 우리를 온갖 정성과 희생을 무릅쓰고 양육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짐승의 다른 점은 짐승은 어미의 은혜를 잊어버리지만 인간은 부모가 키워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도록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옛 속담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치사랑’은 부모에 대한 사랑이고, ‘내리사랑’은 자식에 대한 사랑을 뜻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베풀지만 자식은 그만큼 효도를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부모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습니까? 최근에 부모들이 좋아하는 효도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3등은 손주 재롱, 2등은 용돈, 1등은 안부전화나 방문입니다. 미 에모리대 연구진이 손주사진을 보는 할머니 50명의 뇌를 촬영했습니다. 그 결과 손주가 웃는 사진을 보면 할머니 뇌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손주가 웃는 사진에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가 용돈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에서 ‘공경하다’란 단어가 ‘카베드’입니다. ‘카베드’는 무게를 두다, 중요한 분으로 대하다, 지속적인 봉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모공경이란 부모를 중요한 분으로 대하며 지속적인 봉양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세대가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도와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부모가 원하는 것은 안부전화나 방문입니다. 안부문자를 자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효도는 자녀입니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효는 의미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아무리 황금수의를 해드린 들, 아무리 제사상을 거하게 차린들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살아 생전에 효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효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중요한 것은 효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살아 생전에 부모님께 효를 실천하시는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거룩하라고 명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왜 부모를 경외해야 하는지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부모님께 효를 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